

전북장애인체육회-전주대, 노인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공동세미나 열어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10.03 13:41



노인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고령화시대 노인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와 전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의장, 전주대 박진배 총장,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외빈과 경기단체, 시·군지회 체육담당자 및 지도자, 전주대 생활체육학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는 한경국립대 강유석 교수가 '장애인체육 확장에 따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전주대 이정일 교수는 '고령화 시대 노인스포츠의 현안과 노인스포츠 복지를 위한 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을 다뤘다. 세 번째 발제자인 전북연구원 정은천 박사는 '노인 장애인 대상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노인 장애인 정책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좌장으로 사회를 맡은 조형철 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노인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 참여는 건강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바람이며, 체육복지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전북의 노인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진행한 전주대 생활체육학과 진연경 교수도 "세미나를 통해 장애의 개념을 확장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장환 기자